Fixed Income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데..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시장금리 다시 급등
- 국고 10년 금리 한때 3.3% 상회. 인하 무산 불안에 인상 전환 우려 더해져
- 당사는 기준금리 인상 아니라면 "과도한 금리 상승"이란 견해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한국 시장금리 다시 급등: 이창용 한은 총재 매파적 발언 여파

한국 시장금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 충격으로 또 다시 급등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 템트럼(tantrum)에 가까운 투매가 이뤄졌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구두 개입, 한은 관계자의 진화성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장 마감 무렵 가격 하락 폭이 일부 만회됐지만 불안한 시장 환경은 계속됐다. 12일 한국 채권 벤치마크인 국채 10년 금리는 전일대비 8.1bp 급등한 3.282%를 기록했다. 국고 3년과 5년 금리는 각각 2.923%, 3.088%를 기록하며 전일보다 9bp 이상 속등했다.

"수정 전망에 따라 정책 경로 조정" VS "시장 너무 불안"+"인상 전환 아니다"

시장금리는 전일 미국 국채시장이 '재향군인의 날'로 휴장을 기록함에 따라 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외신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총재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통화정책 경로는 인하 사이클이지만, 11월 수정 경제전망 결과에 따라 경로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이후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인하 사이클의 종료뿐만 아니라 인상 기조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금리로 반영했다. 그 결과 국고 10년 금리는 3.3%를 웃도는 수준까지 급격히 올랐다.

사실상 텐트럼으로 불릴 만한 가파른 시장금리의 상승이 이뤄졌고 패닉에 가까운 국채 매도가 나타났다. 장 마감 무렵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시장의 불안 심리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구두 개입을 실시했고,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가 실명으로 이창용 총재의 방향 전환 언급은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혀 금리의 상승 폭이 다소 진정됐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면.." 과도한 시장금리 상승, 금리 하락 전환 예상

당사는 이번 금리 급등 국면 이전에도 최근 금리가 다소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이후에 나타난 추가 금리 상승은 당연히 과도하다는 견해다.

아울러 이총재 발언 이후 한은 측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적어도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급등을 정당화할 만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여지 역시 아직 부재하다는 시각이다.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시장금리의 하락 전환을 예상하며, 1개월 전후 관점에서 1차 타겟을 3.1%(국채 10년 기준)로 제시한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